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수년간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 속도는 눈부신 상황입니다.

2002년 춘계총회에서는 등록인원 889명, 발표논문 601편, 당시 총 회원수 2608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07년 10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추계총회에서는 등록인원 1820명, 발표논문 1137편, 총 회원수 367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참가인원과 발표논문이 약 2배 증가하는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는 컨벤션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제 학술발표장의 외적 환경은 국제무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춘계총회는 제주 IC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회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개최 장소가 제한적인 상황이 되면서, 기존의 관행이었던 춘계총회-수도권, 추계총회-지방의 구도에서 좀 더 자연스런 개최지 선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제주의 봄 햇살 아래서 등록인원 1652명이 논문 1018편을 발표하였습니다. 총회를 대형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함에 따른 공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기업체 홍보전시회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금년 봄, 가을 총회에서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체의 학회 참여와 학회의 재정 중대를 동시에 목표로 하였습니다. 봄, 가을에 걸쳐 약 60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학연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산업체와 학회의 결속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학회에서 추진한 “고분자 토론회”, “고분자 신기술강좌”, “고분자 아카데미”, “고분자 기기분석” 등의 사업도 회원 여러분들과 여러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학회 학술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와 “폴리머”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논문 접수 시스템을 확립하여 금년부터 접수, 심사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하여 접수-게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Macromolecular Research”는 Impact Factor가 0.854(2005년)에서 1.166(2006년)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폴리머”지는 0.325(2005년)에서 0.378(2006년)로 향상되었습니다.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도 편집진들의 수고에 힘 입어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의 디자인 개편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원님들께서는 곧 새로운 홈페이지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집행부 구성과 평의원선거 등과 관련한 정관과 평의원 선거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회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맞이하였던 학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2007년도 학회의 주요 사업으로 고분자학회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고분자학회 30년의 모든 역사와 자료를 모두 모아 한국고분자학회 3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안광덕 회장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공명선 교수, 학회사무실의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CD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회원들께 CD를 배포하였고, 모든 분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회 30년사 e-book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학회 업무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산학연 모든 분야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할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각종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시너지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의 고급화와 전문화가 업무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회에서는 학회 재정과 전문 업무인력 충원 등의 과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분자학회는 새롭게 발전된 모습을 갖추리라 확신합니다.

올해 학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고분자학회의 다이내믹한 발전상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학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여러 면에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학회의 각종 행사와 활동의 준비과정에서, 바쁜 생업(?)을 뒤로 하고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운영이사들과 함께 한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운영이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궂은 일 마다 많은 학회 사무실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학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 기업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고분자학회 전무이사, 김철희>